

# 건강한 임신

오늘날 당뇨를 가진 여성의 완전한 출산 성공확률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임신전이나 임신중에 혈당관리를 세심하게 하여 정상혈당을 유지했던 여성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즉, 당뇨를 가진 여성의 분만이는 정상인보다 기형아 출생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약 6%정도) 이러한 결함의 대부분은 임신 첫 3주동안 임신부의 혈당관리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기간동안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임신여부를 알지 못하고 지내지만 아기의 기관들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당뇨성 임신부에서 출생한 아이는 신생아실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산실을 떠난후에도 몇가지 문제는 남는다.

근 강직, 무기력 등의 몇가지 변화나 이상들이 임신부의 잘 관리하지 못한 혈당에 기인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아기의 뼈 또는 뇌조직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가 커지면, 의사는 아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치료를 동원하게 된다.

또한 임신의 처음 몇주동안 혈당을 잘 관리해내지 못한 임신부의 아기는 종종 은폐된 질

병들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아기가 태어났을때 이러한 변화들은 쉽게 알지 못한다. 아직은 아기의 신경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들은 미래에 발병될 질환의 시작이라 할수 있다.

미국당뇨협회의 도움으로 뇌로 전달되는 포도당의 전달기전에 대해 임신당뇨의 쥐(rat)를 가지고 연구했다. 포도당은 뇌의 필수연료이다. 그것은 '트랜스포터'라 불리는 작은 소포로 뇌세포에 전달된다. 이 전달물질은 세포속의 포도당의 양 또는 뇌로 전달되는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자들은 오랜동안 계속적인 뇌의 고혈당 상태가 태아의 조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즉, 일반적으로 고혈당 상태일때 방어기전으로 뇌로의 포도당 이동은 감소된다는 연구결과였다.

